

제983호

(1994.8.2 등록번호 다-3802호)

2014년 1월 12일(주일)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문창국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조은실 /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용산동 6가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2014 선교헌금 작성

72개국 797명의 온누리선교사님들이 열방을 섬기고있습니다

그날까지...

지난주에 이어 오늘(15일) 모든 예배에서 '2014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올해 봉헌한 선교헌금은 90명의 선교사 파송 및 후원, 중장기 선교전략 수립 위한 연구소 설립, 선교포럼 개최, 선교리더십 발굴 및 교육, 인터넷 신학교 과정 개설, 선교사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에 사용된다.

현재 72개국 797명의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열방에서 '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있다.

Acts29 비전을 따라 세계로 열방으로 뻗어 나가는 온누리교회는 마침내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그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멈출 수 없다.

'가든지 보내든지', '물질이든 기도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에 동참하자.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간증 6면 / 차세대들의 새벽기도 7면 / Acts29 비전 따라 '세계로 열방으로' 8-9면 / 온누리 주차, 이대로는 안 된다 11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때
용서와 더불어 나눔, 정직, 정의의 삶이 시작됩니다.

눅 3:1~14

미국 월드비전 회장 리처드 스텐스는 저서에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구명 난 복음에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면 구명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만의 구원으로 여긴다면 그 구원은 구명 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면,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복음으로 존재한다면 구명 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만 가둬두거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믿음 또한 구명 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새해 첫 주일에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원하시되 나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에게 복음이 전해진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4-6절).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 세

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신 것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방과 영혼, 만물의 구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산과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산과 골짜기를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산과 골짜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바로 산과 골짜기입니다. 엄청난 격변이 있었고 지진과 홍수가 지금의 산과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는 말씀은 심판의 결과로 생긴 처참했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므로 온전히 변화됩니다.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정신이 변화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내 영혼만의 구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의 구원도, 우리 민족만의 구원도 아닙니다. 모든 열방과 영혼, 만물의 구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영혼은 광야의 빈들에서 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웃도 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기 시작한 때를 역사적인 인물들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니다”(1-2절).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설명하면서 당시 로마의 황제와 유대지역을 다스리던 여러 분봉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할 정도로 당시의 통치자들을 열거하는 것일까요. 세례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건과 당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는 매우 악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악하지 않은 인물이 없습니다.

디베료는 열두 명의 시저 중 세 번째입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네 자녀들이 유대지역을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유대지역을 통치할 때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례요한을 부르셔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된 땅이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유대 땅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위엄과 영광이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정치적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두 명인 것이 이상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의 후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임기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혈통 가운데 한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두 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가 유대사회를 정치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시대에 26년 동안 28명이나 되는 대제사장을 교체했습니다. 로마제국이 대제사장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던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어 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린 시대였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문명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씨앗처럼 작은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종교 행사가 열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당시 정치 권력자들이 머물던 헤롯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의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의 삶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눅 1:80).

여러분, 광야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빈들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 본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온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듣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눅 24:47).

왜 세례요한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거듭남과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돌아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것일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기다렸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면 다시 받아준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키면 용서와 축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 이전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형벌이 두려워서 스스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벌 받기 두려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는 회개는 죄가 싫어서 뉘우치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전파하는 세례요한



회개는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몸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불순물을 모두 토해낼 때까지 가만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영혼이 회개합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

으려 온 사람들에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7-9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손이요,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독설을

입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열매가 없는 회개는 죽은 회개입니다.

어떤 것이 회개의 열매일까요.

첫째, 나눔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옷을 두벌 가진 자가,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눔 없이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나눔이 있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나눔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조금 더 있는 자들이 나누었습니다. 꼭 부유한 사람만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 나눔이 바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둘째, 정직의 열매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12-13절).

회개와 거짓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거짓을 토해내고 내쫓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거짓된 사회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복음의 영광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거짓이 떠나가고 정직한 사회로 변화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눔, 정직, 정의의 삶

셋째, 정의의 열매입니다.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14절).

이 군인들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사역으로 ‘정의로운 사역’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나눔과 정직, 정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때 용서와 더불어 나눔, 정직, 정의의 삶의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은혜와 나눔, 정의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박정일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amazing grace



1월 6일

불순종의 고집을 꺾으시는 은혜

요나 4장 1-11절

오늘 말씀은 우리 불순종의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 삶 속에 진리의 실천이 나타납니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불순종의 고집·습관이 순종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고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삶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책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은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도 죽어 마

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민족이 멸망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니느웨가 회개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아주 고차원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추적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내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야마십니다.

요나는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 나서야 순종합니다. 몸은 순종인데 마음은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어코 요나를 보내시고 요나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니느웨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

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가 될 때 요나는 하나님께 상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지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불순종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그 녀를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분노하는 요나에게 박영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태양을 피하라고 박영굴을 주셨다가 다시 태양빛을 강하게 해서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박영굴 때문에 기뻐했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화가 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녀를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10-11절).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은 아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의 악한 백성들도 아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이의 은혜로 전해지는데 우리 삶이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월 7일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은혜

고린도전서 15:9-10

사도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으로부터 치유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열등감도 문제를 일으키는 감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40세에 자신의 헬기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잘못된 애국심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후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완전히 무기력한 인생이 됩니다.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는 알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음은 열등감의 열 가지 증상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남을 민감하게 비교하고 상대방의 장점만 보고 자신은 단점만 봅니다. 둘째, 감자에게 아첨하고, 자신도 아첨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셋째, 자신에 대한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의심합니다. 다섯째, 몸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섯째,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널리 알리는데 애씁니다. 일곱째,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데 지나치게 힘씁니다. 여덟째, 조그마한 실수도 트집을 잡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홉째,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에도 자신 없어 하고, 목표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잡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열등감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까지 영향을 준 것입니다. 부모는 하

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완벽주의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함으로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종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만 자녀는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1월 8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31:1-8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롬 5:8),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롬 5:10),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있을 때(엡 2:3) 은혜는 언제나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와서 준비하고 계십니

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은혜는 ‘여호와이레’의 은혜였습니다(창 22:14). ‘여호와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인데, 원래 뜻은 ‘보고 계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심으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어린 양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갈 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찾아와 그 앞에서 절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창 45:7-8) 요셉의 풀리지 않았던 고난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풀리지 않았던 많은 인생의 숙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모세, 아브라함, 요셉,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1월 9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수아 2:8-15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라합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장차 멸망당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라합은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리고의 정보국이 그들을 잡으려고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지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탐꾼들이 라합을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장차 일어날 일을 알았습니다(9-11

절).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문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을 쳤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라합은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이시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진리라도 거기에 은혜의 빛이 비추지면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가장 적은 정보를 받았지만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라합에게 임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라합뿐만 아니라 가족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고 할 때, ‘네 집’은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차별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차별 없이 그 은혜에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값없는 은혜, 차별없는 은혜, 조건없는 은혜는 언제나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차별없는 은혜는 그녀 혼자 세상을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살려 준 것은 생명을 내건 모험이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녀는 세상에 혼자 맞섰습니다. 당시에 민족을 배반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한 우리도 세상에 맞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구원을 받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이력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족보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1월 10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19:1-10

인생을 계절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봄과 가을을 방향의 계절로 비유합니다. 사춘기와 사춘기가 그것입니다. 어쩌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때 왜 인생은 방향하는 것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방향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세금이 많았던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세리장이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는 중년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삭개오

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어디에도 누구 집에 가서 머물렀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친구가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와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10절).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존재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에 속한 사

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삭개오는 찾는 사람(seeker)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나는 데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올곧게 자랐음을 알려줍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을 받았고, 관원이거나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흠잡을 것이 없었지만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갚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20%만 보상금을 주면 됐지만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파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자, 잃었던 생명을 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 친구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1월 11일



이성미 집사

작년에 방송을 하다가 우연히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매니저가 제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한 가수가 있는데 암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전에는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은 안다닌다. 좀 만나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때 김자옥 씨가 암 수술을 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언니에게 같이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지만 암을 앓았던 김자옥 씨는 그 친구를 위로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겁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연결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면 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났는데 방송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후로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팠으니 이 친구가 나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친구는 주일날 예배하고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아프고,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 아름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한 친구가 암에 걸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친구를 대했고, 그 친구도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원망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 먼저 간 친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서 이렇게 웃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사랑하는 임ؤمن이라는 친구입니다.

가족과 함께 한 투병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에 50대 대표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좀 이상한데요?” 하더니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겐 정말 길었습니다. ‘내가 암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아니죠?’ 이런 기도를 반복하며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전화를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연합예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13살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13살인데 제가 암이라는 겁니다. 무섭지는 않았는데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이나 가족들을 보면서 괴로웠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저런 정리들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암이란다. 수술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수술을 2일 앞두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를 와락 껴안으면서 “엄마, 잘 할 수 있어. 파이팅!”이라고 했

말 안아줬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환자들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기도했을 때, 김원희 씨와 Acts 29, 김공동체와 함께 아이티에서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아프게 됐는지. 반드시 고통 뒤에는 그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이들이 지난번에 수술 받고 떠나게 됐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남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제 자신이 정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화가 났습니다. 웬지 모르게 보기 싫습니다. 많이 나아진 것이 그 정도였습니다. 사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가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에서 간증했다. 이날 성도들은 이 집사의 간증을 듣고 연애인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중보했다.

습니다.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남편이 기도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돌아오는 동안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아이들에게 신경 안 쓰이게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못갑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죽고 싶다는 것이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기도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수술을 하러 갔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갈 때 ‘내가 너랑 같이 들어간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술을 마쳤는데, 정

실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남편은 철저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은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을 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내 부모님이 사랑하며 사는 것을 못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부라는 것이 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란 살아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차피 죽은 것인데, 내가 살아나면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피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을 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학부모로 사는 우리는 아이들 공부

시키고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낸다면 아이들도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제 아이들은 다른 과외는 안합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은 성경과 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사님, 목사님을 모셔다가 성경 과외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큰 아들이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성경 과외를 했는데 “엄마가 그동안 제일 잘 한 건 성경 과외를 시켜준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딸 2명도 성경 과외를 합니다. 제 큰 아들이 사춘기를 전도사님과 성경 과외를 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멘토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전도사님에게는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공부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았을 때는 뛰어와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받았을 때는 점수를 감춥니다. 엄마가 화를 내니까요. 그런데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춰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도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가 정하고, 고 3이 순가락을 안들면 다들 밥도 안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서 자녀들은 놓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성경에서도 좋은 인물만 골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모세, 다윗, 요셉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그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잘된 것만 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 나를 내어 드려야 하는데 목표를 잘못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빛진 자로

제 인생에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저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다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애쓰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울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한 줄 나오는데요, 거기서 제가 받은 은혜는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맡기시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꿈꾸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 됐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늘 빛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차세대 새벽기도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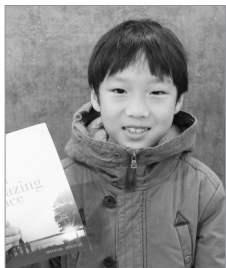
가족이 다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

20일 동안 ‘은혜와 진리’ 도장 광광!

올해 1월 2일부터 차세대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시작됐다. 서빙고를 비롯한 각 처의 캠퍼스와 기도처, 복누리·일산·광명·서대문 공동체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부터 수능결과를 기다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각자 마음속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650여 명의 차세대들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열리는 동안 아이들은 출석도장을 받는다. 20일을 완주한 아이에게는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차세대 새벽기도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9일(목), 하나님의 은혜와 깜짝 선물을 소망하며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노윤영(품방, 9살)

엄마와 함께 새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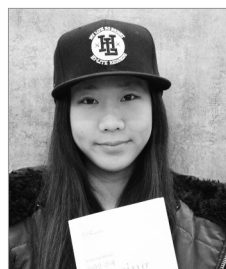
“피곤하지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가족들이 잘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윤영이는 날마다 엄마 손을 잡고 새벽기도회에 나온다. 졸린 눈을 비비며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예배를 마친 후 엄마와 나누곤 한다. 새 학년에서의 좋은 만남과 만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윤영이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윤영이 어머니의 기도제목이다.



배한준(13살, 파워웨이브)

하나님 은혜 바라며

“피곤하고 졸리지만 예배드리니까 좋아요. 올해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준이네 가족은 온누리 특별새벽기도회가 생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다. 한준이 부모는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길 바라는 마음에 자녀와 함께 나온다고 말했다. 아침에 깨울 때 짜증도 내고 힘들어하지만 새벽기도에 참석하고자하는 마음이 심어져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남지혜(파워웨이브, 19)

주님 음성 듣는 아침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학교와 앞으로의 생활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지혜는 혼자서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나온다.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이제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 광고 카피라이터를 꿈꾸는 지혜의 간절한 기도제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다.



김주흔(파워웨이브, 20)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대학진학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주흔이는 수능을 치르고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께 묻는 중이다. 새벽기도회에 나와 대학에 대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설교를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주흔이는 오늘도 두려워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2014 차세대 예배장소

서빙고 - (예꿈 02-3215-3512, 품방 02-3215-3525, 파워웨이브 02-3215-3523)				
영역	부서	대상연령	예배시간	예배장소
예수님의 꿈아이	영아1부	18-40개월	9:00	신관 2층 꿈아이홀
	영아2부	18-40개월	11:30	신관 2층 꿈아이홀
	영아3부	18-40개월	14:00	신관 2층 꿈아이홀
	유아1부	41개월-5세	9:00	본관 2층 꿈터
	유아2부	41개월-5세	11:30	본관 2층 꿈터
	유아3부	41개월-5세	14:00	본관 2층 꿈터
	유치1부	6-7세	9:00	신관 3층 드림홀
	유치2부	6-7세	11:30	신관 3층 드림홀
	유치3부	6-7세	14:00	신관 3층 드림홀
꿈이 자라는 땅	유년1부	초등 1-2학년	9:00	신관 4층 누리홀
	유년2부	초등 1-2학년	11:30	신관 4층 누리홀
	유년3부	초등 1-2학년	14:00	신관 4층 누리홀
	초등1부	초등 3-4학년	9:00	신관 B1층 한동홀
	초등2부	초등 3-4학년	14:00	신관 B2층 시온홀
	소년1부	초등 5-6학년	9:00	신관 B2층 시온홀
	소년2부	초등 5-6학년	14:00	신관 B2층 콘서트홀
파워웨이브	중등1부	중등 1-3학년	9:00	신관 B1층 두란노홀
	중등2부	중등 1-3학년	9:00	비전의 땅 전시관
	중등3부	중등 1-3학년	11:30	비전의 땅 전시관
	고등부	고등 1-3학년	9:00	신관 5층 경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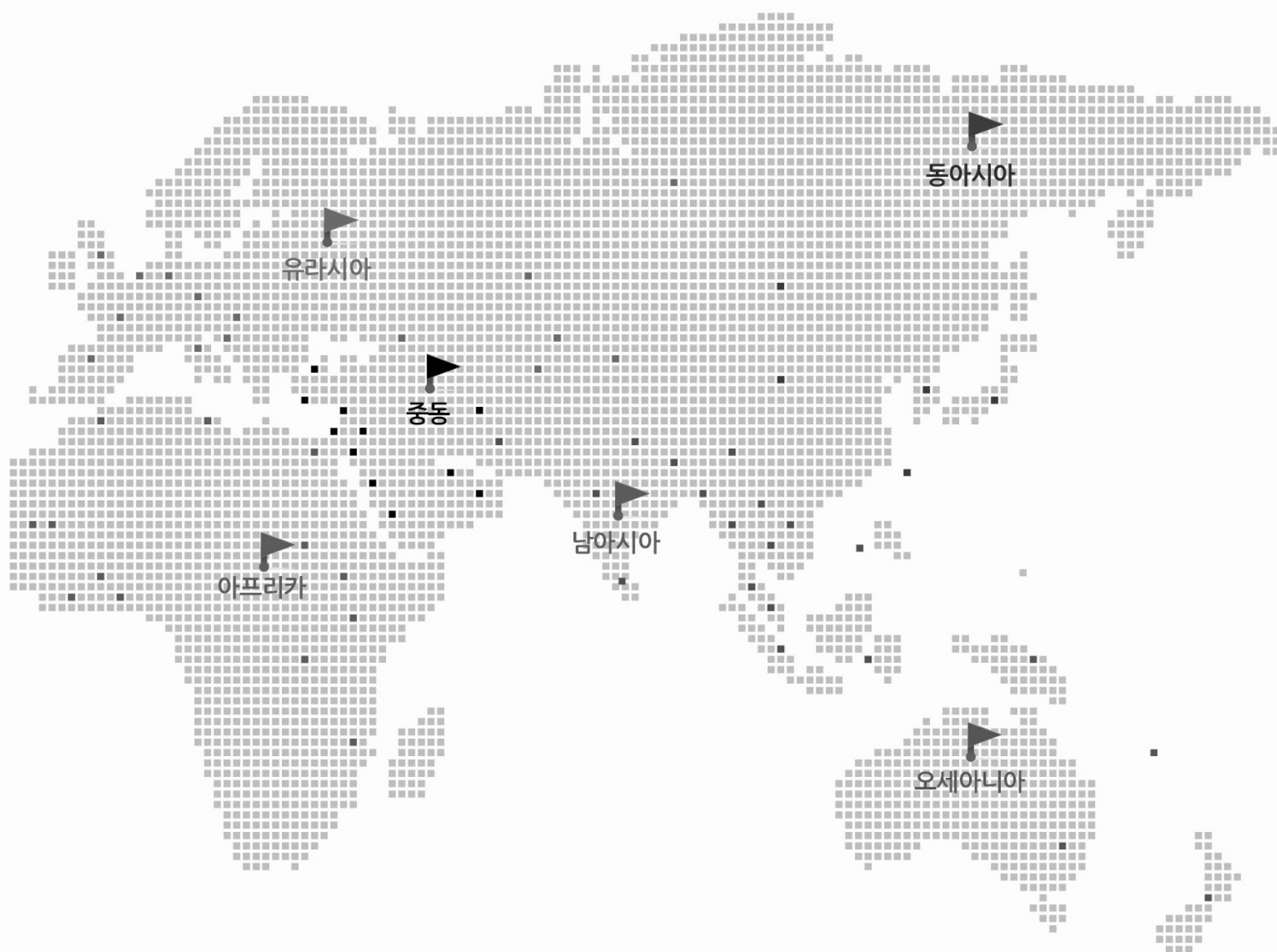
양재 - (최진현 간사 02-570-7436)				
영역	부서	대상연령	예배시간	예배장소
예수님의 꿈아이	영아 1부	18개월-3세	9:00	사이닝홀
	영아 2부	18개월-3세	11:30	사이닝홀
	영아 3부	18개월-3세	13:50	사이닝홀
	유아 1부	4세-5세	9:00	꿈터
	유아 2부	4세-5세	11:30	꿈터
	유아 3부	4세-5세	13:50	꿈터
	유치 1부	6세-7세	9:00	꿈아이홀
	유치 2부	6세-7세	11:30	꿈아이홀
	유치 3부	6세-7세	13:50	꿈아이홀
꿈이 자라는 땅	유년 1부	초등 1-2학년	9:00	화평홀
	유년 2부	초등 1-2학년	11:30	화평홀
	유년 3부	초등 1-3학년	13:50	화평홀
	초등 1부	초등 3-4학년	9:00	온유홀
	초등 2부	초등 3-4학년	11:30	온유홀
	소년 1부	초등 5-6학년	9:00	일동제약 지하 1층
	소년 2부	초등 5-6학년	11:30	일동제약 지하 1층
파워웨이브	소년 3부	초등 4-6학년	13:50	온유홀
	중등부	중등 1-3학년	9:00	기쁨홀
	고등부	고등 1-3학년	9:00	강의동4층하용조기념홀



영역	부서	대상연령	예배시간	예배장소
예수님의 꿈아이	영아부	18-47개월	9:00	꿈터(B동 1층)
	유치부	4-7세		꿈아이홀(B동 1층)
꿈이 자라는 땅	유년부	초등 1-3학년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초등 4-6학년		화평홀(B동 2층)
파워웨이브	중등부	중등 1-3학년	9:00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고등 1-3학년		기쁨홀(A동 3층)

도곡
(정성화 간사
02-570-7548)

Acts29 비전 따라



복음의 깃발 들고 뻗어나가는 온누리 선교사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1994년 온누리교회는 2천/1만 비전을 품었다. 이것은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운다는 비전이다. 비전

이 선포된 이후, ‘온누리 성도는 모두 선교사’라는 사명감이 고취되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온누리 성도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후 2003년에는 Acts29비전을 선포함으로 사도행전적 교회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여 2천개의 교회개혁 비전으로 확장되었다. 그렇게 달려와 지금까지 1,598명의 장단기 선교사를 파송·후원하고 있고, 선교지에 340

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선교 현장의 목소리

온누리교회 비전을 품고 떠난 선교사들은 각 선교지 상황에 맞게 선교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 교회 개혁, 현지인 리더십 양성, 미전도 종족 선교, 차세대사역 등 하나님이 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올해

도 각 선교지에서는 치열한 영적전쟁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각 지역의 선교지 상황과 올해 사역 방향, 선교헌금 작정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온누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담은 온누리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세계로, 열방으로’



2014 파송선교사 현황

현재 온누리 선교사 797명(2014년 1월 10일 기준)이 72개국의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2천명의 선교사 파송 비전은 2018년 즈음 완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리카
50명



유라시아
63명



중동
90명



남아시아
204명



동아시아
206명
한국본부 124명



오세아니아
11명



북아메리카
29명



중남미
20명

경제성장의 침체 ‘남아시아 I국’

“여러분이 걱정된 현금과 헌신이 한 톨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신흥 경제대국들의 경제성장 침체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의 여파로 이곳은 현재 무역적자와 경제성장을 침체, 물가상승 등 불안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데모

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CGNTV 남아시아 I국 언어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지와 미전도 종족 지역에 초점을 맞춰 사역하고 있는 온누리 선교사들이 CGNTV와 협력한다면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바울 선교사

분쟁과 격변의 ‘중동·아프리카’

“성도님들의 선교헌금과 중보기도는 선교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중동은 여전히 정치적 분쟁과 격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튀니지도 정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충돌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수단은 내전에 휩싸여 수

십만의 무고한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른 상태입니다. 난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과 중장기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고, 요르단을 중심으로 아랍 교회의 차세대 리더십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사역한 한국 사역자 발굴 및 파송도 필요합니다.

/ 노 여호수아 선교사

복음화를 2% ‘동아시아 A국’

“온누리 성도님들이 있어 온누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복음화는 2%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곳 복음주의 협의회에서는 10% 복음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10% 복음화가 정치적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여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

회 내부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인 사회 풍조가 밀려와 복음 증거보다 기복적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험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일대일 제자 양육의 정착을 위해 힘써 달려갈 것입니다.

/ 강바나바 선교사

척박한 선교지 ‘동아시아 B국’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헌금 작정은 주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해주세요.”

새 정권 임기 초기의 강력한 통제가 예전과 달리 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비자 및 취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교사의 활동임지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향후 선교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재조명하고 이에 적합한 과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올해 사역방향은 현재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고 규모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 유소망 선교사

현장 사역을 지원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

“작정헌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힘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 온누리에 주신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불가능해 보이던 2천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누리 선교 제 2기를 준비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선교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장 선교사 포함해

신입 선교사, 본부 선교 스태프를 대상으로 교회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선교지 상황에 맞는 선교전략을 세워나갈 것이고, 안식년 선교사의 재훈련강화와 현장선교사들의 사역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 이준 총무



2014 신년특집 - 온누리교회와 아프리카

NGO 더 멋진 세상, 아프리카를 구하라

남하하는 이슬람 ... NGO 중심 현장사역으로 맞서
먹고사는 것이 문제, 밥 한 끼와 약 한 알이 우선

1989년에는 북아프리카 H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부부를 후원했다. 1994년에는 아프리카 K국에 온누리교회 최초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했다. 지금도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미혼모 및 고아원, 성경번역 및 교회 개척 사역 등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선교는 2기 온누리교회가 출범한 이후 더욱 활발해졌다. 지난 2012년 ‘블레싱 아프리카’를 주제로 10억 아프리카인을 가슴에 품었다.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기초의료서비스와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선봉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이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더 멋진 마을 조성 ▷아웃리치를 통한 지원의 연속성 유지 및 관계개선 ▷지역 개발을 위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사역을 전개해 나갔다. 아프리카인들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밥 한 끼와 질병을 치료하는 약 한 알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로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사망하는 데 대부분이 아동이다.

ADIS, 풍토병, 열악한 분만 시설 등도 아프리카인들을 고통 받게 한다. 하루속히 빈곤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NGO 더 멋진 세상, 영적 최전선으로

NGO의 아프리카 선교는 영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슬람은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아프리카인들을 개종시키고 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남하하는 이슬람 세력에 맞설 전략이 필요한데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 이름으로 전방개척 선교는 불가능하다. 현장에 뛰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숨 쉬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NGO 더 멋진 세상은 세네갈과 르완다 등지에서 현장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일회성 단기선교가 아니라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도 세네갈, 기니비사우, 르완다, 기니 등지에서 식수개선사업, 보건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이동 검진 및 질병퇴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향후 서부 아프리카의 더 많은 국가들도 개척할 계획이다.

“하쿠나 마타타”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라는 뜻을 가진 아프리카어. 이 말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생활이 느껴진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다. 대륙 한 가운데 적도가 지나고 있어 무더운 지역이 많고,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있다.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아 민족과 언어, 종교와 문화가

다양하다. 자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산업 발전은 더딘 편이다.

10억 아프리카인을 품다

온누리교회는 교회 창립 초창기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발을 내딛었다.

1984년 한국선교사 최초로 감비아에 간 이재환 선교사(Acts29 비전빌리지원장)를 도왔고,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위와 빈곤, 질병과 싸우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기도, 눈물과 땀방울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도록

목동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전기도 물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지만 학교가 없어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은 학교(교실 한 칸)와 치료실(방 한 칸)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오전에는 불어, 수학, 성경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종족 언어 읽기와 쓰기, 성경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치료(혈압, 당뇨 체크, 마사지 등)를 해줄 생각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실 한 칸과 작은 치료실, 야외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과 수차례 성경

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모두 무슬림들입니다. 이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게 해달라는 저의 요구에 마을 사람들은 몇 차례 모임을 가진 후에 저의 제안을 받아 드렸습니다.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 좋게 말해 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아프리카 D국에서 R선교사드림



춤추며 치료자 하나님 찬양

인도자훈련학교에서 한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인상이 좋고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3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걸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만나 보니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땀지만 수술이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치료방법을 찾던 중 한국의 선한목자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들을 모시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한국에 가기 6개월 전부터 소식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가던 날 춤추며 걸어 나오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목사님의 지극한 간호로 사모님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모님은 평생을 누워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모님은 춤을 추며 치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아프리카 K국에서 K선교사드림

신년캠페인 - 온누리 주차, 이대로는 안 된다 1

바른 주차 빠른 소통

"거기 온누리 교회죠?"

지난 주일(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목회지원실. 주차팀 담당 간사가 진땀을 빼고 있다. 빗발치는 주민들과 일부 성도들의 항의전화에 굵실대느라 혼이 나갔다. 이 장면은 드문 광경이 아니다. 주일과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그런데 주차팀 담당 간사가 무슨 죄인가. 또 이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수신호 중인 주차팀은 무슨 죄란 말인가. 이것은 분명 예배드린다는 핑계로 아무데나 차 버리고(?) 사라진 차주(車主)문제다. 온누리 주차, 이대로는 안 된다.

혼잡할 수밖에 없다

항의내용은 이렇다.

"강변북로에서 후진하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주차딱지 떼었는데 교회에서 물어주나요?"

"누가 우리 집 주차장에 차놓고 교회 가서 기다리는 중이요"

거짓말 같지만 모두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차팀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성도가 한 둘이 아니다.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말든 뭐든 그리 불만인지 도로 한 복판에 차 세우고 고성을 지른다. 지난달 22일 동작대교 주차장에서 기자가 목격한 일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오죽하면 "왜 교회만 오면 무질서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까.

왜 이렇게 주차문제가 심각할까. 막히고,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 차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교회 주차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이다. 서빙고 650대, 양재 36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주일이면 주차가능대수의 1.5배 차량이 교회로 몰려든다. 혼잡할 수밖에 없다.

또 집과 교회의 거리도 문제다. 멀리서 오는 성도들에게 무작정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다.



주민들 "불법주차 더는 못 참는다"

서빙고 주차 4원칙

1. 교역자, 1부 성가대는 유료주차장으로
2. 예배 후에는 바로 차량 빼기
3. 교회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 하지 말기
4. 장애인, 노약자에게 주차자리 양보하기

양재 주차 4원칙

1. 교역자, 1부 성가대는 양재역 환승주차장으로
2. 예배 후에는 바로 차량 빼기
3. 교회 앞 도로에 불법주차 하지말기
4. 교회 부근 상가 주차장 이용하지 말기

나보다 우리, 우리보다 남이 먼저

해답은 '바른 주차, 빠른 소통'이다. 물론 대중교통이용 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교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바른 주차, 빠른 소통'이 가능할까.

문에 모든 차량이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나보다 우리, 우리보다 남이 먼저'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셋째, 주민들과의 약속 지키자.

교회는 주민들에게 ▷교회 앞 일방순환로 개설 ▷신동아아파트 경내 출입 자체 ▷주차보사요원 증원 ▷서빙고역에서 교회로 오는 보행로설치 ▷서빙고로 연결하는 철도건널목 또는 지하도 개설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해야한다.

넷째,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아무리 좋은 대안도 성도들의 참여가 없으면 종이 호랑이다. 교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논리로 28년을 보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도 깊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회와 성도, 주민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CGNTV 토크콘서트 힐링유



개그우먼 이희경의 고난극복기

'누려'라는 유행어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우먼 이희경.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힘들게 일해 번 돈으로 호사를 누리며 사는 사모님 캐릭터로 열연 중이다. 극중에서 처럼 그녀의 삶도 녹록치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기가 기울어졌다. 오랜 시간동안 그녀와 가족들은 채권자들에게 시달렸다. 사춘기 시절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다. 어느 해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개그우먼 이희경은.....

1984년 생으로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이다. 2011년 KBS연예대상 코미디부문 여자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주연배우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시절은 행복한 장면을 찍을 때고, 힘든 시절은 힘든 장면을 찍는 순간인 거죠.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자의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삼수 끝에 지상파의 공채 개그맨이 된 그녀가 스스로를 인생의 주연배우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힐링레터를 보낸다. CGNTV는 개그우먼 이희경의 고난극복기를 내일(13일) 오전 9시40분(재방송 오후 7시40분)에 방영한다.



새벽기도회 13일 남았다

서빙고 기준 1천 5백 성도 참석 한파 잇은 성도들 ... 어메이징 그레이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달 16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주제로 국내 10개 캠퍼스, 30개 해외비전교회, 기도처 등지에서 일제히 시작된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에는 서빙고 기준 1천 5백 여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 부르짖고 있다. 40일 새벽기도회 중반으로 갈수록 참가인원이 줄었던 종전과 달리 올해 새벽기도회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은혜와 진리'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에는 축구 선수 이영표, 작가 이지선, 개그우먼 이성미 등 유명 인사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김영길 장로(한동대 총장)가 간증한다.

1월 2일부터는 차세대들의 새벽기도도 시작되었다. 매서운 추위도 아

랑곳하지 않고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온 차세대들도 고사리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여호수아공동체 심수지 자매는 택시기사와 40일 동안 계약을 맺고 일산에서 교회까지 오고, 같은 공동체 송진환 순장은 순원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다.

매서운 한파도, 쌓인 피로도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성도들을 막지 못한다. 아직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내일 새벽은 어떤가.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속옷과 채색옷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창37:3).

복잡한 가정사를 표현할 때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을 쓴다. 영적으로 미화되어서 그렇지 야곱의 집안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4명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배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는 '12지파의 탄생'으로 미화되어서 그렇지 결코 훈훈한 가정 스토리는 아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다. 그런데 형들은 왜 죽이고 싶을 만큼 요셉을 시기한 걸까? 야곱의 편애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야곱의 행동이 형들의 미움과 불평을 산 이유다. 그러면 채색옷을 지어주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채색옷'의 히브리어 원어는 '쿠토네트 파썸'으로 '긴 소매의 속옷'을 가리킨다. 색동저고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성서시대 유대인들이 몸에 걸친 옷은 크게 5가지 종류, 즉 속옷, 겹옷, 허리띠, 터번, 샌들이 그것이었다. 성서시대에 평민들이 짧은 소매의 속옷을 입었던 것과 달리 긴 소매의 속옷은 최상류층인 왕족이 입는 특별한 옷이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옷이 이처럼 특별한 옷이라면 형들의 미움과 시기심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사주어서 시기한 것이 아니었다. 명절날 색동저고리 설빔을 요셉에게만 사주어서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위치, 즉 왕족을 나타내는 심상치 않은 옷을 입혀 준 것에 대한 분개였던 것이다. 야곱이 후에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까지 올라가리라는 환상을 미리 보고 이런 옷을 입혀 주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 이루실 미래의 비전을 간접적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 류모세 선교사(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빛나는 노년을 꿈꾸며 양재, 중년 위한 강좌

양재 캠퍼스 한마음 정신회복 사역팀에서 오는 2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중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강좌를 연다. '사추기를 넘어 빛나는 노년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좌는 중년의 정신건강 회복과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강좌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설명과 목회자의 올바른 영적인 접근을 통해 크리스천으로 균형 잡힌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가비는 5만원.

문의 010-3789-3582 김영환 팀장

열린다성경아카데미 강좌

일시: 4월7일-6월11일

(매주 월, 수, 총10회)

과목: 성서히브리어(월-오전), 구약심화과정(월-오후), 신약심화과정(월-저녁), 성서지리&고고학(수-오전), 성막성전절기(수-오후)

문의: 김주희 간사(010-4902-1022)

바로잡습니다

김대진 목사가 단동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기에 바로잡습니다.

“딸의 병 고치러 한국 왔어요”

러시아예배, 골수암 투병 소녀돕기

지난해 가을, 에케르케(딸)의 부모님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을 찾았다. 딸의 병명은 골수암. 아이의 나이는 고작 14살이다. 3번에 걸쳐 화학치료를 받았고 왼쪽 다리의 뼈 한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했다.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중이다.

부모는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대한 돈을 마련해 왔지만 9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더 감당해내기에 역부족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온누리미션 러시아 예배공동체에서 온누리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한 알렉산드라 전도사(러시아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고 이슬람 신자인 아이 부모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온누리 성도들의 기도와 재정으로 도와준다면 아이의 생명과 부모의 영혼을 살리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다”고 전했다.

후원계좌_하나은행 573-910004-02305(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문의_02-3215-3730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골수암으로 투병중인 14세 소녀 에케르케와 부모님.



반태효 목사 방주교회로... 반태효 목사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 지난 주일(5일) 서빙고 1부예배에서 반태효 목사는 20여 년 동안 섬긴 성도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날 반목사는 “20대에 온누리교회에 와서 50대에 다른 교회로 가는 동안 큰 사랑을 주신 성도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 만남의 잔치

날짜: 1월 19일, 장소: 드림홀(지하2층) / 시간: 오후 3시 30분

대상: 2013년 11월 10일-2014년 1월 4일 등록한 분

강남A 강성오 강지연 김영목 김하나 박정서 송수아 이강래 이유정 이지숙 조복희 장성규 조성수 한상임 홍경미	박영동 박재용 이병철 이선만 임혜정 최미영 홍나현 홍덕희	과천여왕 김원정 변광호 조성희	최정화 신본안산 김찬호 곽경희 우정하	김학실 이주영 양희승 임영수	박정미 변상준 백경희 이수희 정성운 정윤화 정인순 지명혜	양재 김동길 김성근 김영례 김영호 김창희 박신영 옥승호 이선옥 이정자 임형섭 홍선영
강남B 김은희	강남C 김복이 김현준 김현성 도학주 박향우 성현숙 이경화 이은선	분당A 서지희 장혜운 한국현	분당B 권소연 김기진 박용준 성방주 유승연 이예슬 임선교	서초A 공석금 김완규 김태훈 이경운 장주하 전미숙 홍승서	서초C 강상원 김재순 박수연 박원자 이미연 이영일 이혜경	송파 김진우 박은혜



제983호 | 2014년 1월 12일(주일)

[illegible]